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플래스틱 재활용 논란의 허실

플래스틱 재활용 정책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석유화학, 플래스틱산업 그리고 산업자원부 사이의 논란이 분분하면서도 건전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및 플래스틱기업들이 플래스틱의 환경공해 유발성 및 유해성을 간과한 채 환경부의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서까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임은 물론 전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 건전경영의 부재에서 오는 무대책의 후유증이 우려될 정도이다.

유럽 각국을 비롯 이웃 일본에서도 플래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처, 플래스틱 포장재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세운지 오래된 것이 사실이고, 나아가 석유화학제품 및 플래스틱의 수요산업인 전자, 자동차, 타이어의 환경오염 유발정도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을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음이 잘 말해주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인식해야 할 점은 한국경제의 근간이 국내수요를 기초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출에 의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갈 경우 역으로 선진국들의 수입규제에 묶여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유럽 각국 및 미국이 WTO체제를 정착시켜가면서 각종 환경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나라를 비롯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환경관련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석유화학 및 플래스틱기업들과 환경부가 환경정책을 놓고 이해가지 않는 논란 및 논쟁에 휘말려 있을 뿐 장기적인 개선책 모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해 석유화학제품 및 플래스틱을 규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고, 또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첫째, 플래스틱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을 어느 단계에 부과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환경부는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서 합성수지 메이커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석유화학기업들은 원료물질에 부과하는 사례가 없는 만큼 플래스틱 가공기업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환경부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 원료물질 생산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부담금을 부과하는 선례가 어느 국가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역차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합성수지 판매량의 신고제 및 미납 플래스틱 가공기업의 영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플래스틱 환경오염 부담금의 과다 문제이다. 아마도 가장 첨예한 이슈일 것이다. 환경부는 2-3년전부터 플래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들어 폐기물 부담금 요율을 생산액의 3%까지 인상할 것을 추진했으나, 석유화학기업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혀 기존의 0.7%로 후퇴한 바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련기업 관계자 및 국민들의 무의식적 행위와 행태로 미루어, 3% 부과안이 지나친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부과비율 0.7%의 효율성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통관과정에서 확실하게 부과, 국산제품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은 당연한다.

셋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장재질 사용규제 및 일회용 포장재 무상제공 금지 문제이다. 석유화학 및 플래스틱 메이커들이 98년6월 「생산자연속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7월31일 「플라스틱 환경개선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환경정책의 현실성 부재를 강력 비판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일상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강제성 있는 사용규제는 불가피하고,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복합재질 포장재의 사용규제도 이미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플래스틱 재질 감량화도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은 당연하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8/10/19>